

# 국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등 고발

### “대선공작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뉴스타파·KBS·MBC 기자 포함 네이버 겨냥 추가 법적 조치 예고

국민의힘은 6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 가짜뉴스·과답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KBS·M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을 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들 통해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김씨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두 특위는 “국민의힘은 이 땅에 다시는 대선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언론매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들 특위는 성명을 통해 “네이버도 ‘대선공작 가

짜뉴스’ 확산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뉴스타파 퇴출을 비롯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네이버 역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한 범죄인 ‘대선공작’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가 ‘대선공작 가짜뉴스’ 방조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격 매체 및 보도를 걸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신학림의 가짜 인터뷰가 처음 실린 것은 뉴스타파이지만, 이것을 키운 것은 JTBC”라며 “뉴스타파는 척후병이고 주력은 JTBC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JTBC 소속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가 뉴스타파로 옮긴 A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당 기자가) 퇴사했다고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JTBC는 이날 ‘뉴스룸’을 통해 앞서 보도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자체 검증 결과, 이 보도에는 중요한 진술의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를 뿌리고 공작선거를 자행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언론의 자유인가”라며 “정정보도를 낼 것이 아니라 방송 면허를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중국 회담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 검찰 “선거제도 농단한 중대 사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의 강백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다. 반부패3부 소속 검사들을 중심으로 선거와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수사부, 형사1부 소속 검사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속, 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이 2021년 9월 김씨와 공모해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윤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지사)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라고 본다.

아울러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 경위나 대가관계만이 아니라 ‘배후 세력’이 존재했는지 등도 폭넓게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군, 무인기·미사일 요격 레이저 기술 개발 착수

군이 대형 무인기나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출력 레이저 요격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방위사업청은 6일 제3회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 회를 개최하고 고출력 레이저 기술개발 방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고출력 레이저 기술개발은 대형 무인기, 방사포탄, 아음속(음속에 약간 못미치는 속도) 유도탄 등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현존하는 레이저 대공무기보다 월등한 300kW(킬로와트) 이상의 출

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중 착수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레이저 요격무기는 실탄 기반 대공무기와 달리 전력공급만 충분하다면 빛의 속도로 다수의 표적을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체계로 꼽힌다. 300kW급 레이저 무기체계는 아음속 순항유도탄에 대응할 수 있는 출력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에서야 연구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북핵 실존적 위협...상임이사국 책임 무거워”

### 자카르타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 대북제재 미온적인 중·러시아 압박

### 남중국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보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일원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

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향해 연이날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

EAS는 여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항행·비행 자유’ 등은 미국이 해당 현안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침공이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도 참석국들에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에서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정확히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